노 재 승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기억된 심상에 관한 조형화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4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이 정 민

논 문 개 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 매우 파악하기 힘들다. 이러한 행위는 내적 경험과 기억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며 본인은 이러한 행위를 삶의 참된 모습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삶에 의해 얻어진 다양한 체험은 그 사람의 일생에 일관되게 지속되는 것으로 즉 예술표현은 경험하여 얻어진 진실을 구체적 혹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나의 일상에 경험하는 여러 기억들의 이미지를 통하여 느껴지는 허무적인 요소들을 사실적인 형태를 통해 재현하기보다는 그 본질에 더 가까이 접근하려는 노력으로 그 외형을 단순화시키고 더 나아가 조형공간을 선(line)과 매스(mass)의 결합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총 3장으로 구성하여 서술하였다.

제 Ⅰ장 서론에서는 인간 중심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정서와 경험의 기억된 이미지를 조형화 함에 있어서의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Ⅱ장 본론에서는 기억된 이미지와 심상의 조형적 표현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며 표현된 형태들의 조형성과 작품 7점의 제작기법과 재료, 제작 의도 등을 밝혔다.

제 Ⅲ장 결론에서는 본고의 내용정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작업방향과 본인의 의지를 밝혔다.

목 차

논 문 개 요

Ⅰ. 서 론 ····· 1

Ⅱ. 본 론 ····· 2

1. 작품의 정신적 바탕 ····· 2

1) 기억된 이미지 ····· 2

2) 심상의 조형적 표현 ····· 4

2. 형태적 근거 ····· 6

1) 도입된 형태적 요소 ····· 6

2) 선(line)과 매스(mass)의 결합 ····· 8

3. 작품 분석 ····· 11

Ⅲ. 결 론 ····· 25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생각의 차/Stainless Steel, 대리석/2003 ····· 11

【작품 2】 기억의 잔상/철, 상주석/2003 ····· 13

【작품 3】 반쯤은 잊혀진/Stainless Steel, 마천석/2003 ····· 15

【작품 4】 상기시키는 힘/Stainless Steel, 자연석, 마천석/2003 ····· 17

【작품 5】 생각을 요하는/Stainless Steel,마천석/2003 ····· 19

【작품 6】 기억장치/Stainless Steel,마천석/2003 ····· 21

【작품 7】 기억의 회로/Stainless Steel, 장미석/2003 ····· 23

Ⅰ. 서 론

최근에 미술은 궁극적인 미의 개념이나 절대적 가치를 지향하는 대신 가치의 상대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원화경향을 보인다. 그로 인해 다양한 주제와 양식, 매체가 차별 없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었다.

본인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조나 담론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일상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기억의 단상들을 통해 인간의 내부와 삶을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이면을 인식하게 되었다.

내면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기억과 형상화되지 못한 심리를 공간에 부여하고 형상에서 흘러나와 보이는 유동적인 이미지로 기억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다.

또한, 인간의 표현행위나 사물에 대한 지각의 초점이 결코 순간적이거나 충동적인 것이 아닌 각자가 지니고 있는 기억 속의 축적된 경험과 정보들에 의해 독자적 표현에 의해 나타나는 사실을 통하여 연구방법으로는 작품의 소재로 표현된 기억의 세계에 창작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내용과 형식면에서 작품분석을 하여 본인의 조형관과 예술관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 조형화 한 작품 7점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작품의 정신적 바탕

1) 기억된 이미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기쁨과, 분노, 공포 그리고 슬픔의 정서는 인간의 기본정서에 해당한다. 비교문화적 연구에 의하면(Ekman, 1972), 원시문화의 사람들도 현대인 같이 기쁨이나 슬픔 혹은 분노 등의 정서를 표현하기 때문에 정서표현은 보편적이고 선천적인 특성으로 인식된다.[1)]

사람은 누구나 정서를 느끼고 그것에 반응한다. 인간이 잠시 잃어버린 또 하나의 정신세계, 추억, 경험 등에서 느껴지는 감정들, 즉 침묵, 양면성, 집착, 반복되는 일상, 제 3자가 되는 자신, 시선의식, 불안함, 두려움 외로움, 착각, 호기심, 자기만의 작은 행복 등이다.

본인은 자연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모든 물상을 만나면서 내면의 심상 즉, 기억[2)]의 창고에 쌓이는 다양한 형태의 감흥을 내면 속에 빛 바래고 아련한 모습으로 각인되어 잠재해온 이미지들은 현재의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감흥과 함께 더해져 새롭게 이미지화 되어 나타나는 것이라 본다.

---

1) 장휘숙 저 「인간발달-전생애 발달심리학」박영사, 2000, p162

2) '기억'이란 단어는 독립적 범주로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광범한 영역을 가진다. 학습된 사고, 행동, 의식작용 등 행위만이 아니라 반사작용 심지어 유전인자까지 기억의 영역에 포함된다. 말하자면 오감을 통하여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받아들이는 모든 각인이나 흔적을 망라하며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의 경험 전체가 기억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최 민, 「기억과 망각」문화 과학, 2000, p.205

사람들은 하나의 대상물을 경험할 때 같은 감흥과 가치를 두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대상을 바라보는 개인적인 가치의 기준이 각기 다르며 편견을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각기 다른 경험치를 통해보는 대상은 여러 모습의 심상으로 기억에 남는다.

모든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동안, 모든 사건들이 다 경험은 아니다.

단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끼칠 때에만 사건은 경험이 된다. 그래서, 잠재된 내면의 수많은 경험의 파편들이 여러 형태의 심상으로 맺어져 화면에 표출되는 것이다.

본인은 내면 깊숙이 가라앉아 있기도 하고 무어라 뚜렷이 표현할 수 없는 형상화되지 못한 심상들을 공간에 부유하고 형상에서 흘러나와 보이는 유동적인 이미지로 기억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다.

작품표현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과 사상, 의식들을 결부시켜 다가오는 경험적 이미지들의 추구와 그것들의 개성적 표현에 주력하여 왔다. 즉 일상적 생활 속의 실제적 경험과 그에 수반되는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모티브로 삼아 주관적 공간의식을 통한 독자적이고 개성적인 시각적 표현 방법을 모색해 왔다.

기억은 단순히 정보를 비축해 놓은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자료를 체계화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어린시절의 기억과 같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기억은 정보의 기호화(記號化)과정[3] 에서 언어를 사용하여 기억하는 기억부호보다 시각적 자극을 동반한 심상부로 기억될 때 더 잘 기억된다고 하며 심리학자들은 문장보다 그림이 더 잘 기억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매우 하찮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시절의 단편적인 기억들

3) 기억과정은 기억화(encoding)→저장(storage)인출(retrieval)의 과정을 거친다.

이 어떤 자극에 의해 문뜩 사진처럼 선명하게 떠올리게 되는데, 이러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 대부분 꿈과 마찬가지로 압축, 대치과정을 거친 매우 상징적인 것들이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은폐기억(隱蔽記憶)의 성질을 띄고 있다.

2) 심상의 조형적 표현

심상이란 마음의 떠오르는 감각적 성질을 가진 상(像)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심상들이 있지만, 각각 개념이 다르고 한 대상에서 나오는 심상이 누구에게나 같은 것은 아니다. 심상은 의식, 진실, 개념, 이미지 등을 포함하며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기억 구조 속에는 대상에 대해 사진과 같은 구체적 심상, 구조만 동일한 심상, 구조 중 대표적인 부분만을 표상하는 심상 등, 여러 수준의 심상들이 있다. 이러한 심상들은 비록 그 윤곽, 표면 또는 색상이 애매하지만, 그 상을 일으킨 힘의 형태를 매우 정밀하게 구체화 할 수 있다.[4)]

심상은 창조활동을 통해 표출되며 하나의 예술작품은 예술가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심상언어를 끄집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내면에 발견되어진 허무적 요소 즉, 삶에 지쳐 뿌듯함보다는 공허함, 두려움, 불안함을 그 본질에 더 가까이 접근하려는 노력으로 그 외형을 단순화시키고 더 나아가 기본적인 형태로 환원하고자 하였다.

주관적인 요소들을 이러한 단순하고 합리적인 기하학의 형태로 나타내고자

4) 루돌프 아른하임「시각적 사고」김정오(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2

한 것은 절제된 자기증명적 논리와 의미가 거세된 무표정의 조형언어로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조형(造形)이란 여러 가지 것을 사용하여 어느 관념에서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하며 어떤 물질을 보며 이것에 필요한 형태를 부여하는 행위이다.[5]

또는, 허버트 리드(Herbert Read)의 말처럼 형태를 만들어 내려는 의지이며 하나의 창조이고 예술의 존재 이유 자체이며, 인간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간의 경험과 상징의 표상인 것이다.

본인은 주관적 경험에서 오는 공허감이나 그로 인해 오는 정적인 상태 속에서 그것과는 대립되는 감정들을 매스(mass)의 형태에 이입하여 표현해 보았다.

2. 형태적 근거

1) 도입된 형태적 요소

본인 작품의 주된 표현형태는 기하학적인 형태인 사각형, 원, 선등 가장 기본적인 형태와 양(mass)로 이루어져있다.

기하학적 형태란 복잡한 자연물리로부터 간결한 형태로의 경향성이 이루어낸 인공적인 추상의 형태이며, 인간의 이지적 사고체계에 의해 창조된 자연의 은유적 형태, 혹은 정제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체의 장식성을 제거하고 가장 단순한 기하학적 요소로 환원시킨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순·명쾌한 느낌을 주며, 그 대상을 설명하는 구체

5) 한석우, 「입체조형」(서울: 미진사, 1991), p85

성은 부족하지만 그 간결함 속에서 우리는 함축된 의미를 즉, 작가의 정신을 발견 할 수 있는 것이다.[6]

본인 작품의 주된 형태인 사각, 원, 선, 매스(mass) 등의 각각의 의미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각

사각을 통해 최소한의 내용을 지닌 화면 구성을 이루었던 절대주의 작가 카시미르 말레비치(Casimir Malevitch)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중압감에서 예술을 해방시키려고 나는 필사적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중 네모꼴에서 피난처를 찾았다."[7] 라고 하였다.

본인 작품의 사각형의 입체는 내면의 본질과 정신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또한 관념의 틀을 벗어나려는 과도기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② 원

원은 조형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정되어 있는 동시에 불안정한 동적인 형태이다. 모든 기하학적 곡선의 주체이며 무한한 움직임의 순환과 회전의 향상성을 가진 동적 형태인 동시에 특정한 방향을 갖지 않는 정적인 형태이다.[8]

본인 작품에서의 원은 현실에 무수히 방황하는 불안정한 자아의 모습을 표

---

6) 한석우, 「입체조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미진사, 1991, p. 86
7) 아니엘라 야페, 이희숙 역, 「미술과 상징」, 열화당, 1979, p. 13
8) 한석우, 「입체조형 이론과 실제」, 서울 : 미진사, 1991, p.86

현하려 했고 때로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③ 선(line)

칸딘스키는 그의 저서, 「점, 선, 면』에서 선에 관해 이렇게 애기하고 있다. "기하학적으로 생각할 때 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다. 이것은 점이 움직여 나간 흔적, 다시 말해 점이 만들어낸 소산이다. 선은 점의 움직임에서 생겨난다. 즉 완전히 자체 내에 폐쇄된 휴식이 파괴됨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여기서 정적인 것이 역동적인 것으로 비약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선은 회화의 원천적인 요소 점에 대해서는 최대의 대립관계에 있다. 더 정확히 말해, 선은 제 2 차적인 요소라고 표시될 수 있다.[9)]

따라서 선은 자체 내에 운동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동적인 것으로서의 선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운동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움직이며 변모하는 내면세계의 표현과 관련하여 적합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선의 운동성과 방향성은 본인의 작품에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성질이다.

선은 시각적으로 3차원에 생존하는 이러한 선은 성격과 문제. 움직임과 행동. 윤곽. 연상. 감정의 이미지를 표현하며 선의 운동방향의 감각은 반복에 따라 리듬도 느끼게 된다. 또한, [기초 디자인}는 "선은 표현을 위한 매우 풍부한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모든 정서나 분위기를 나타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10)]고 말하였다.

---

9) 칸딘스키, 「점・선・면」, 차봉희 역 (서울 : 열화당, 1995), p47
10) Ibid. p. 88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선은 주관적인 감성의 표현과 물체의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지며, 그 자체가 물질이나 물질의 본성을 의미함이 아니라 물체의 이미지를 시각화 시켜준다. 이는 선의 재현적 기능을 배제하고 감성화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또한, 선은 구성요소로서 표현뿐만 아니라 하나의 장으로 공간에 분할하는 역할도 한다. 작품에서의 선은 규칙성과 반복의 효과로 안정감 있게 분할하여 시각적으로 확산된 공간을 느끼게 한 것이다.

본인의 작품은 형태의 자율적 변형을 통하여 기하학적 형상의 조형적 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일상에 존재하는 개인적 경험의 특성을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나타낸 것이다.

④ 매스(mass)

본인의 작품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늘 보아왔던 자연 속에서의 돌이 아닌 새로운 기하학형태의 공간적 틀 안에서의 돌, 자유스러운 트인 공간이 아닌(닫혀진 공간) 안에 돌덩어리를 배치함으로써 무한히 크고 넓은 마음과 상상의 공간을 대변하려 했으며 자유로운 사고와 새로운 감각적 자극을 유도하려 했다.

2차원의 영역이 형태라면 삼차원의 영역은 매스(mass)이다. 매스는 조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3차원적인 작품은 우리가 이것을 돌아가며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 이미지는 수시로 변화된다.

따라서 형태는 계속 다른 관계 속에서 보여진다. 만일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느 한 곳에 멈추어 조각품을 감상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시각 경험은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데이비드 스미스의 조각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11)

본인의 주관적 경험에서 오는 공허감이나 그로 인해 오는 정적인 상태 속에서 그것과는 대립되는 감정들을 매스(mass)에 이입하여 표현하였다.

2) 선(line)과 매스(mass)의 결합

본인 작품의 주된 조형적 요소로 나타나는 것이 선(line)과 양(mass), 그리고 이 대립적인 요소의 상호 보완적인 공간성이다.

공간을 기하학 형태나 매스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근본적인 요소로 여기고 있으며, 매스(mass)의 양(量)과 공간의 관계에 따른 조형적 변화도 나타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세 요소가 상호 보완적인 융화를 통해 전체성이 강조되도록 유도하였다.

공간의 본질은 그것을 한정짓는 모든 요소의 상호작용에 있다. 공간을 창조하는 것은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 여러 가지 특성의 에너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성격의 독창적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특히, 조각공간은 구체적인 구조체에 의해서 확실히 한정된 어떤 영역을 설정하므로 공간으로의 자각과 표상이 생성되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공간의 의미는 무한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잠재되어 있는 공간이다. 꽉 채워져 있는 공간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 구축된 조형적인 구조보다 많은 창조의 가능성

11) 데이비드 A. 라우어 지음,「조형의 원리」, 이대일 옮김, 서울 : 예경), p130

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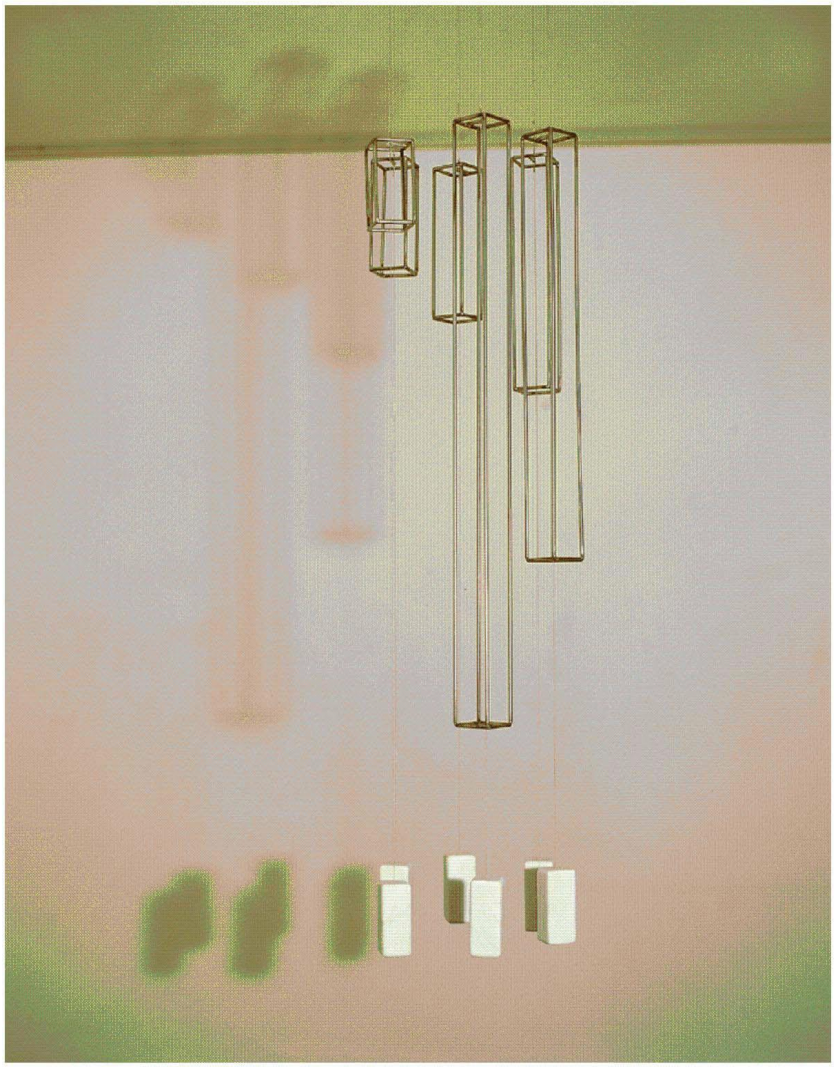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형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불규칙하고 불합리하며 불완전하기도 하다. 이것은 결코 의미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벽한 형태보다는 대상의 재현을 배제하고 단순과 절제로 대상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함이며, 인간과 사물의 관계 속에서 본질을 찾고자 함이다.

제작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선은 형상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내적 표현이 드러난다. 형상들 사이의 간격은 형태와 공간 사이의 리듬을 산출하여 실제로 여러 형상들이 보여 질 때의 공간이 간격처럼 친밀, 중첩, 그리고 고립의 효과를 보인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매스(mass)를 설정된 기하학적인 공간(空間)에 끼워 넣음으로서 공간과 매스의 대비되는 조형효과를 가져왔으며, 선(line), 매스(mass), 공간성이 서로 융화되어 전체성(全體性)을 확립하고자 했다.

그리고 소재가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재료들의 결합이다. 쇠나 스테인리스 스틸은 현대적이면서 가공미를 갖고 있는 재료이다. 돌은 자연의 재료로 그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질적인 물질의 결합을 통해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표현하려 하였다.

3. 작품 분석



【작품 1】 생각의 차/Stainless Steel, 대리석/36×36×192(㎝)/2003

【작품 1】 **생각의 차**

재　　료 : Stainless Steel, 대리석

크　　기 : 36×36×192(㎝)

제작방법 : 본 작품은 스테인리스 스틸 원형 봉을 이용하여 직사각형의 다양한 크기의 외곽 틀을 산소로 구부린 후 용접하였고 대리석을 에폭시로 고정하여 와이어 줄을 이용해 천장에 원형으로 매달은 형태로 이루어 졌다.

인간관계에서 항상 느껴온 감정이지만 동일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양각색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사고하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의 범주는 언제나 일치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마음이 만나 대화를 통해 교감하게 되면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작품에서 사각 틀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개체들을 성격을 의미하며 기하학적 형태의 대리석의 위치를 일치되게 표현한 것은 의견의 합일은 이룬 자아들의 모습을 형상화하려하였다.

【작품 2】 기억의 잔상/15×14×142/철, 상주석/2003

【작품 2】 **기억의 잔상**

재　　료 : 철, 상주석

크　　기 : 95×80×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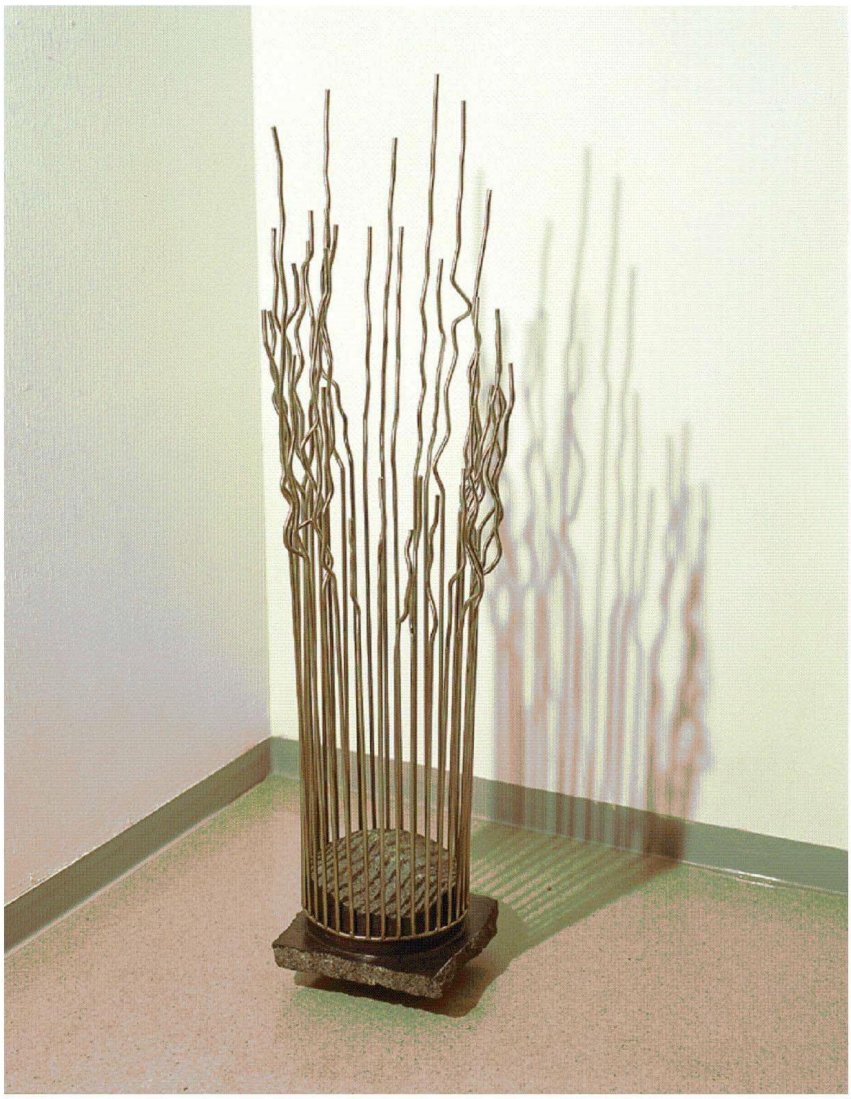
제작기법 : 본 작품은 철의 원형 봉을 이용하여 직사각형의 다양한 크기의 외곽틀을 산소로 구부린 후 용접하였고 상주석을 산소로 거칠게 표면처리 한 후 철 구조물에 끼워서 제작하였다.

이 작품에 보여지는 의도화 된 일정한 간격과 비례와 산만한 무게감을 표현함으로써 정의 내릴 수 없는 머리 속의 상념을 인위적으로나마 정돈하고픈 나의 노력을 표현하고자 했다.

본인의 내면 속에 잔재한 부유한 기억을 너무도 무거운 돌덩어리로 표현해 허공간 속에 띄워봄으로써 삶의 무게가 좀더 가벼워 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심을 표현하려했다.

특히, 과거의 경험했던 일이나 기억을 기하학적인 선의 형태와 매스의 결합방식으로 이미지화 시켜 표출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늘 보아왔던 자연 속에서의 돌이 아닌 새로운 기하학형태의 공간적 틀 안에서의 돌, 자유스러운 트인 공간이 아닌(닫혀진 공간) 안에 돌덩어리를 배치함으로써 무한히 크고 넓은 마음과 상상의 공간을 대변하려 했으며 자유로운 사고와 새로운 감각적 자극을 유도하려 했다.



【작품 3】 반쯤은 잊혀진/Stainless Steel, 마천석/38×45×152(㎝)/2003

【작품 3】 **반쯤은 잊혀진**

재　　료 : Stainless Steel, 마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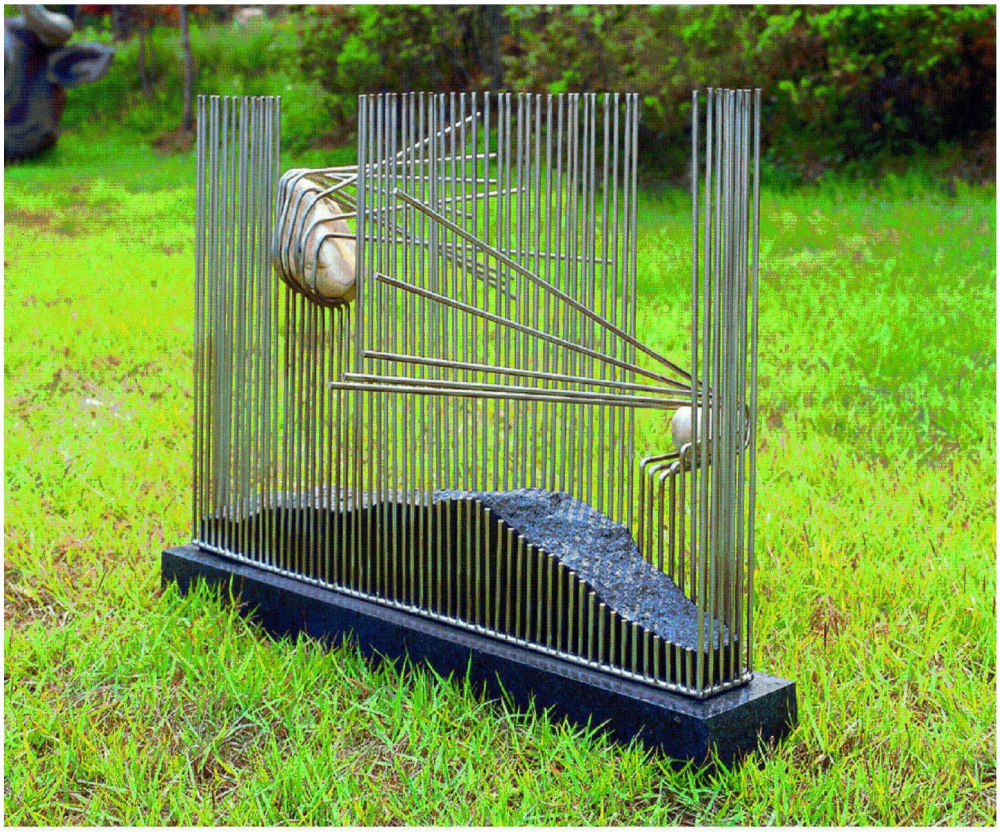
크　　기 : 38×45×152(㎝)

제작기법 : 이 작품은 마천석을 원형으로 부분 절삭한 후에 사포로 연마하고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을 산소로 자연스럽게 구부린 후 용접하여 그 위에 끼워서 제작하였다.

누구나 과거의 경험 속에 즐거웠던 시간은 추억으로 남기려 하고 아팠던 기억은 애써 잊어버리려 한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생생히 떠오르며 다시 과거의 회상에 묻혀버리곤 한다. 이제는 의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아픔만 빼고는 반 정도는 잊혀진 것 같다.

검은 기억의 덩어리에서부터 시작된 상념들이 차츰 흔들리며 사라져 가는 형상을 표현했다.

기억의 덩어리로부터 풀어지는 듯한 운동감 있는 선은 기억의 심상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랫동안 본인의 기억 속에 잠재해온 삶의 흔적들을 함축적인 의미로 나타내고자 했다.



【작품 4】 상기시키는 힘/Stainless Steel, 자연석, 마천석/92×85×64(㎝) 2003

【작품 4】 **상기시키는 힘**

재　　료 : Stainless Steel, 자연석, 마천석

크　　기 : 92×85×64(㎝)

제작기법 : 이 작품은 마천석을 사각형으로 절삭하여 부분 가공한 후에 사포로 연마하고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을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용접하여 그 위에 끼워서 제작, 환봉을 자연석의 형태에 맞게 산소로 구부린 후 감싸서 제작하였다.

수직형태의 환봉을 일정한 간격에 맞추어 즐비하게 나열함으로써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관된 삶 속의 고정적인 관념을 상징화하려 하였다.

자연석을 선택한 것은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환경과 자연석의 가장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형태를 돋보이게 하고자 의도한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말과 생각을 기억하듯이 우리 자신의 행위도 기억한다. 운동은 종종 회상을 일으키는 출발점을 제공한다. 어디선가 또 다른 나를 일깨울 수 있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자아를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5】 생각을 요하는/Stainless Steel,마천석/20×20×98(㎝)/2003

【작품 5】 **생각을 요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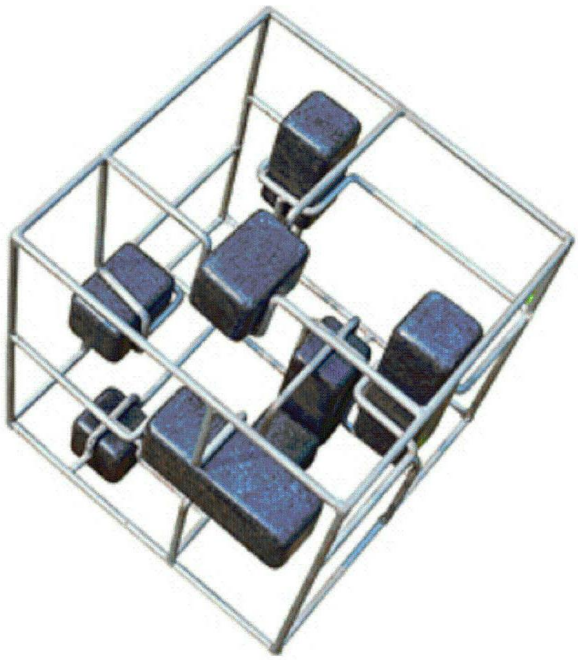
재　　료 : Stainless Steel, 마천석

크　　기 : 20×20×98(㎝)

제작기법 : 이 작품은 마천석을 사각형으로 절삭한 후 연마하여 사포, 정으로 마무리하고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으로 사각형의 틀을 자르고 용접하여 그 안에 끼워서 제작, 와이어를 이용해 천장에 매달아 설치하였다.

작품의 사각형의 입체는 내면의 본질과 정신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관념의 사고에 틀을 벗어나려는 본인의 노력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변화를 실천해야할 과도기적 심상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 작품은 홀로 있을 때 불안함을 느끼며 존재의 상실성에 대해 고뇌하고 군중 속에 존재할 때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게 되는 본인의 심리적 상태를 형상화하려했으며 남과 다른 개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때로 동떨어진 느낌이 들 때의 심상을 표현했다.



【작품 6】 기억장치/Stainless Steel,마천석/25×25×28(㎝)/2003

【작품 6】 기억장치

재　　료 : Stainless Steel, 마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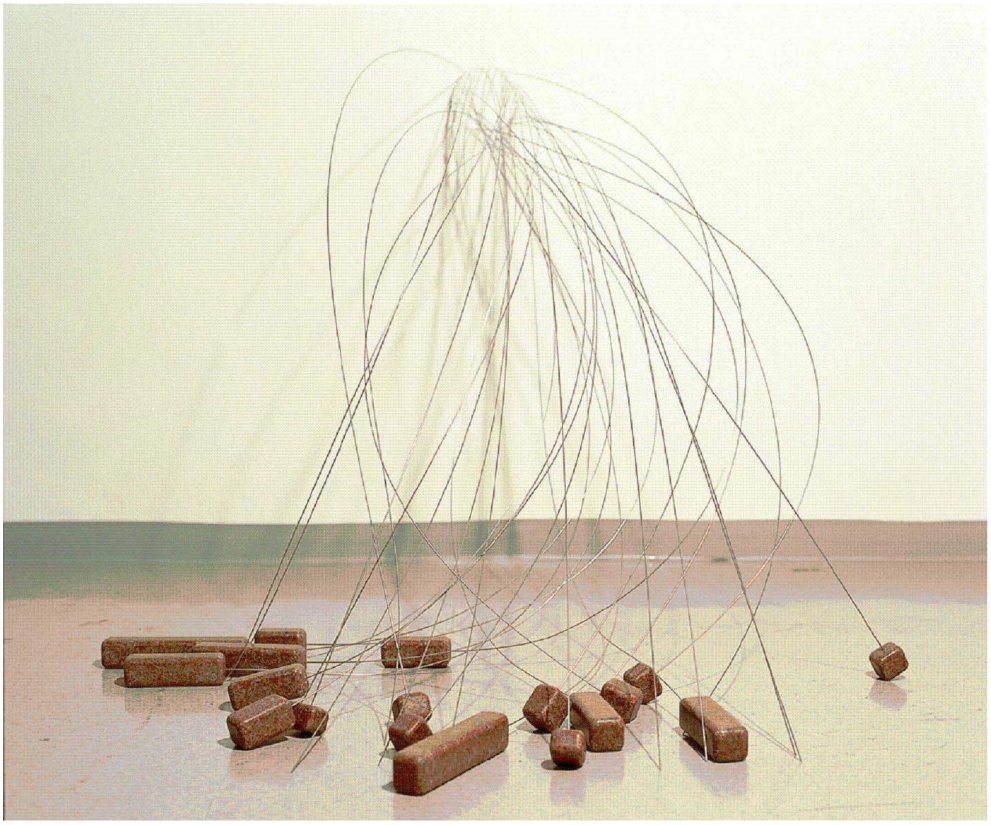
크　　기 : 25×25×28(㎝)

제작기법 : 이 작품은 스테인리스 스틸의 환봉을 산소로 정사각형의 입방체의 틀을 만들어 구부린 후 용접하고 마천석을 절삭하여 연마한 후 끼운다.

이 작품은 놀이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글북에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던 유년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하였다.

작품 안에 인위적인 허 공간을 두어 도형들이 불규칙, 때로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보는 각도에 따라 겹쳐지는 형상도가 각기 달라 보이게 제작하였다.

작품 안에 끼워진 기하학 형태의 사각 도형의 돌은 일상에서 느낀 공허함을 바탕으로 가슴속에 뻥 뚫린 것 같은 허함 속에 미련, 기억의 잔재 등을 표현하려했다.



【작품 7】 기억의 회로/Stainless Steel, 장미석/135×210×86(㎝)

【작품 7】 기억의 회로

재　　료 : Stainless Steel, 장미석

크　　기 : 135×210×86(㎝)

제작기법 : 장미석을 광다듬한 후에 스테일리스 스틸 환봉을 에폭시로 고정한 후 벽면에 원형으로 설치한다.

이 작품은 전시 공간의 특정구역에 설치함으로써 새롭게 구조적으로 연출된 공간을 만든다. 최대한 공간적으로 확대되면서 질서와 규칙적인 조율을 느낄 수 있게 의도하였다. 현재의 어떤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한 경험을 기억나게 한다. 그 경험은 그것과 밀접하게 연합된 다른 경험을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차례로 다른 경험을 회상시킨다.

인간은 한평생동안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며 살아간다. 그것은 찾으면 다시 또 다른 찾고 싶은 것으로 변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찾도록 유혹한다. 이러한 반복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며 공허감 속에 희망적인 기원의 메시지를 담아 표현했다.

Ⅲ. 결 론

본인은 현 세계의 다양한 문화영향과 인간관계 속에서 폭 넓은 개인적 경험을 수용하며, 그 속에 참여하는 동시대적인 자세는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내 자신을 잃지 않는 확고한 주체성과 시대정신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창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내면 깊숙이 가라앉아 있기도 하고 무어라 뚜렷이 표현할 수 없는 형상화되지 못한 심상들을 공간에 부유하고 형상에서 흘러나와 보이는 유동적인 이미지로 기억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내면에서 발견되어진 허무주의적인 공허감 속에 공존하고 있는 상반된 주관적인 정서가 개입된 매스(mass)를 도입함으로서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인 면에서 새로운 조형세계를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립적인 선(line)과 매스(mass), 이 두 요소를 결합해 내는 공간성을 융화하여 전체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양(mass)의 위치에 따라 공간의 변화도 가져오는 조형효과를 나태 내고자 했다.

본인은 이러한 작업과정을 통하여 일상의 경험과 기억들을 내면과 결부시키면서 사물에 대한 다양한 시각적 사고를 확대시켜 좀더 사물에 대한 의미를 깊게 성찰하려한다.

또한, 상징적인 표현방법과 조형성을 모색하여 끊임없는 자아탐구와 조형실험을 통해 앞으로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김소영,「자기의식의 변증법에서 본 헤겔의 미술철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데이비드 A 라우어 지음, 「조형의 원리」, 이대일 옮김, 예경, 1996

루돌프 아른하임,「시각적 사고」, 김정오 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2

로잘린드 크라우스, 「현대조각의 의미」, 윤난지 역 예경, 1998

아니엘라 야페, 「미술과 상징」, 이희숙 역, 열화당. 1979.

장휘숙 저, 「인간발달-전생에 발달심리학」, 박영사, 2000

최 민, 「기억과 망각」, 교육 과학, 2000

한석우, 「입체조형 이론과 실제」, 서울 : 미진사, 1991

W. 칸딘스키,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역, 서울 : 열화당, 1998

W. 칸딘스키, 「점·선·면」, 차봉희 역, 서울 : 열화당, 1995

ABSTRACT

A study on Making Subconsciousness in Plastic Form

Lee, Jeong Min
Sculpture Major
Dept. of Plastic Arts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Every acts of a man comes from an inner experience which is not easy to be seen and figured out. It's recognized as a true face of life.

Various experiences obtained through life are consistently continued to a lifetime of a man. It's thought that an artistic expression is a tangible or symbolic expression of truth obtained by an experience.

Therefore, futile elements felt through images of various memories from daily experiences are to be simplified in an effort to closely approach to their essence rather than to restore through actual forms. Furthermore, a space for the forms are to be restored in geometrical forms or organic medium.

This study is composed of three chapters based on the works.

In the first introduction chapter, the purpose and the method of

the study are suggested in making images from fundamental emotions and experienced memories, which are composed of the heart of a man, in plastic forms.

In the 2nd main subject chapter, it's stated about expressions of memorized images and mental images. It's also stated about formative nature of expressed forms and techniques, materials and intention of working for the 7 works.

In the third conclusion chapter, it's concluded the study and revealed future direction of works and will.